



Original Article

# A Study on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of Breast-Feeding Mothers

Jang, Gun Ja<sup>1</sup> · Chung, Kwi Ae<sup>2</sup>

<sup>1</sup>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모유수유 영아모가 인지한 영아기질과 모아애착 정도

장군자<sup>1</sup> · 정귀애<sup>2</sup>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sup>1</sup>, 영남이공대학 간호과 교수<sup>2</sup>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of breast-feeding mothers with a 5 ~ 7 month old infant. **Methods:** This study was descriptive research. The subjects were 258 infant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ing in 'Year 2007 Healthy Breastfed Baby Contest' on September 5, 2007 and visiting a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30 in 2007. The data was gather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about the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MAI) and What My baby is Like (WBL). **Results:** The mean score of WBL was 6.75 and that of MAI was 3.88.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 $r = .33, p < .01$ ). **Conclusion:** Breast-feeding mothers perceived infant's temperament as more positive, therefore, breast-feeding should be encouraged.

**Key Words :** Breast-Feeding, Infant, Mother, Attachment, Temperament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중국에서 영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멜라민이 분유에서 검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행위는 포유류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이고, 가장 자연스런 수유 형태로 모유에 함유된 호르몬, 사이토카인 및 각종 항체가 생후 6개월 전후에 영아의 장기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해야 하는 중요한 양육행위로(Shin, 2000)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은 생후 6개월에 38.4%(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6)로 인공수유 실천율보다 낮으므로 인공수유와 차별화된 모유수유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는 모아간 수유행동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Worobey (1993)는 수유 시 어머니의 행동에서 모유수유 영아모가 인공수

**주요어 :** 모유수유, 영아, 어머니, 영아기질, 모아애착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ung, Kwi Ae,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274 Hyeonchung-ro, Namgu, Daegu 705-703, Korea. Tel: 82-53-650-9384, Fax: 82-53-625-4705, E-mail: kchung@ync.ac.kr

투고일 : 2009년 7월 2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4일

유 영아모보다 수유동안 아이를 더 많이 만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인공수유의 경우 영아기 후반기쯤 영아가 젖병을 잡기 시작하면 영아 혼자 수유가 가능하지만 모유수유는 항상 모아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유형태에 따른 수유행동의 변화가 모아 관계에 변화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연구된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Kim과 Jang(2009)은 모유수유모가 영아기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지한다고 했지만 수유형태를 제 특성에 포함시킨 연구(Lee, Kang, Park, Hwang, & Mun, 2003)에서는 인공수유모와 모유수유모가 인지한 영아기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모가 인지하는 영아기질 정도를 조사해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아기질은 모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아의 기질 특성보다 어머니가 영아기질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영아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가 모아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Lee et al., 2003), 영아의 사회성 발달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Andrews, 1990). 특히 영아기 기질은 아동기를 넘어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되고, 생의 초기 몇몇 기질 특성은 부적응 행동과도 관련될 수 있어(Kim & Kwak, 2007) 영아기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영아기 기질은 선천적인 경향성은 있지만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행동에 의해 어느 정도 변화가능한데(Han & Bang, 2000), 모유수유를 3개월 이상 지속한 영아모들은 분유수유를 선택한 영아모들보다 영아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 행동을 보이므로(Britton, Britton, & Gronwaldt, 2006) 이러한 양육행동이 영아기질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모유수유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통해 모아간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애착을 처음으로 제시한 Bowlby는 모애착이 단순히 수유를 무엇으로 하느냐보다 수유 시 모아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Cassidy & Shaver, 2002). 영아기 모아간 상호작용은 수유 시 가장 활발한데, 인공수유든 모유수유든 영아 초반기에는 어머니가 영아를 안고 주로 수유하므로 수유 시 모아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영아 후반기에 접어들면 수유행위에 변화가 생겨 인공수유에서는 모아간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애착을 다룬 연구들은 모아접촉의 기회가 많은 영아초기에 조사된 연구(Han, 2001)이고, 상대적으로 모애접촉의 기회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영아 후반기 모애착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생후 6개월 전후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모애착

정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후 5~7개월의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아기질 및 모애착 정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앞으로 모유수유 교육과 홍보전략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후 5~7개월 된 영아에게 모유수유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인지한 영아기질과 모애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모유수유 중인 어머니와 영아로 영아기질의 경우 생후 3개월까지 변화가능성이 있으나 생후 6개월부터 비교적 안정된다는 연구(Han & Bang, 2000)를 근거로 생후 6개월 전후 영아와 어머니를 임의 표집하였다. 즉 2007년 대구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생후 5~7개월의 영아 어머니 186명과 대구시 소재 B 보건소 예방 접종실에 방문한 생후 5~7개월의 영아 어머니 72명으로 전체 대상자 수는 총 258명이었다. 2007년 대구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영아의 경우 생후 5개월 64명, 6개월 62명, 7개월 60명이고, 보건소 예방 접종실에 방문한 영아의 경우 생후 5개월 36명, 6개월 23명, 7개월 13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영아와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이고, 수유형태를 어머니에게 질문했을 때 보충식을 하더라도 모유가 주된 수유형태인 경우로 생후 1~4개월까지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했더라도 현재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영아기질

기질이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 행동양식, 또는 영아의 정서적 반응으로(Coffman, Levitt, Guacci, &

Silver, 1992; Han & Bang, 2000) 본 연구에서는 Pridham, Chang과 Chiu(1994)가 개발한 “what my baby is like”를 Bang(2001)이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an과 Bang(2000)에서는 19개 문항이었으나 Bang(2001)에서는 ‘나의 아기는 수유할 때 젖꼭지를 찾아서 물기 위해 오랫동안 시도를 하는 편이다’의 1개 문항이 생략되어 온순·지속성(7문항), 활동성(4문항), 반응성(4문항), 적응성(3문항)의 4개 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 9점으로 평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지며, 반응을 잘 나타내고, 지속적이며, 잘 밀착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아기임을 의미한다. 원저자들에 의한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69 \sim .87$ 이었고, 국문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2)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로(Ainsworth, 1989), 영아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애정적 유대이고 정서적 결속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성이 스스로 평가하는 영아에 대한 애착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Muller(1994)가 고안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Han(2001)이 변안하여 수정·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아애착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평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개발자가 보고한 분반 4주 후에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Han(2001)의 연구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4. 자료수집

대구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 영아기질과 모아애착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선발대회 참가 접수 일에 배부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 처리, 연구 철회 가능성, 연구결과와 활용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조사에 서면 동의한 최종 설문지는 2007년 9월 5일에 실시된 선발대회 당일 수거하였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설문내용과 모유수유아 선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접수 인원은 생후 5~7개월 각각 65명씩 총 195명이었으나 선발대회 당

일 참석하지 않은 생후 5개월 1명, 6개월 3명, 7개월 5명 총 9명을 제외한 18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건소의 자료수집은 대구시 소재 B보건소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 표집에 대한 조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한 영아 어머니에게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서면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예방접종이 끝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연구보조원이 영아를 안고 있었으며,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영아기질과 모아애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기질과 모아애착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영아기질과 모아애착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검정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영아의 월령은 5개월 38.8%, 6개월 32.9%, 7개월 28.3%로 5개월 영아가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아(58.5%)와 여아(41.5%)가 비슷하였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가 62.0%로 ‘둘째’ 혹은 그 이상’ 38.0%보다 많았다. 분만형태는 정상 분만이 68.6%였고,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1.41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77.9%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80.6%)가 직업이 있는 경우(19.4%)보다 많았고, 가족 월수입은 200~300만원 미만(41.5%)이 200만원 미만(31.8%), 300만원 이상(26.7%)보다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83.3%)이 대가족(16.7%)보다 많았고, 영아를 돌보는 동안 양육지지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경우(77.5%)가 받지 않는 경우(22.5%)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 SD
Age of infants (month)	5	100 (38.8)
	6	85 (32.9)
	7	73 (28.3)
Gender of infants	Boy	151 (58.5)
	Girl	107 (41.5)
Birth rank of infants	First	160 (62.0)
	≥ Second	98 (38.0)
Type of delivery	Vaginal	177 (68.6)
	C-sec	81 (31.4)
Mother's age (yrs)		31.41 ± 3.39
	≤ 30	111 (43.0)
	31 ~ 35	113 (43.8)
	≥ 36	34 (13.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57 (22.1)
	≥ College	201 (77.9)
Mother's employment	Working mothers	20 (19.4)
	Homemakers	208 (80.6)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82 (31.8)
	200 ~ 299	107 (41.5)
	≥ 300	69 (26.7)
Family structure	Nuclear	215 (83.3)
	Extended	43 (16.7)
Family support	Yes	200 (77.5)
	No	58 (22.5)

## 2. 영아기질과 모애착 정도

영아기질 총점과 4가지 하부 항목에 대한 평균 평점을 살펴 보면, 총점은 9점 만점에 6.75점이었고, 점수 범위는 2.78 ~ 8.67점이었다. 영아기질의 4가지 하부 항목에서는 온순·지속성이 7.0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반응성(6.98점), 활동성(6.46점), 적응성(6.08점) 순이었다.

모애착의 평균 평점의 총점은 4점 만점에 3.88점이었고, 점수 범위는 2.00 ~ 4.00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N=258)

Variable	M ± SD	Min	Max
Infant temperament (Total)	6.75 ± 1.03	2.78	8.67
Amenability & persistence	7.07 ± 1.30	1.86	9.00
Activity	6.46 ± 1.65	1.25	9.00
Responsivity to stimuli	6.98 ± 1.38	1.50	9.00
Adaptability	6.08 ± 1.58	1.67	9.00
Mother-infant attachment	3.88 ± 0.22	2.00	4.00

## 3. 일반적 특성별 영아기질과 모애착의 차이

영아기질은 일반적 특성 중 영아의 출생순위( $t = 3.00$ ,  $p = .00$ ), 분만형태( $t = 2.55$ ,  $p = .01$ ), 가족 월수입( $F = 4.63$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애착은 일반적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영아기질과 모애착과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영아모가 인지한 영아기질과 모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33$ ,  $p < .01$ ). 또 모애착 정도는 영아기질의 4개 하부항목 중 온순·지속성 ( $r = 0.29$ ,  $p < .01$ ), 활동성 ( $r = 0.21$ ,  $p < .01$ )과 반응성 ( $r = 0.33$ ,  $p < .01$ )의 3개 하부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 논 의

모유수유는 모애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만직후 어머니들은 산전에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현실화되면서 쉽게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만다. UNICEF가 권장하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유수유가 가진 장점을 수유를 선택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분만초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생후 5 ~ 7개월의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아기질과 모애착 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전략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가 인지한 영아기질 정도는 6.75/9점이었고, 영아기질의 4개 하부 영역에서는 온순·지속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수유형태에 따른 영아기질 차이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모유수유모와 분유수유모가 인지한 영아기질 차이를 비교한 Kim과 Jang(2009)의 연구에서 모유수유모의 기질 총점 6.26점, 분유수유모의 기질 총점 5.26점보다 높은 점수이고 수유형태를 제 특성에 포함시켜 영아기질 차이를 비교한 Lee 등(2003)의 연구에서 모유수유모 6.12점, 분유수유모의 기질 총점 6.23점보다 높은

**Table 3.** Level of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fant temperament			Mother-infant attachment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of infants (month)	5	6.56 ± 1.14	2.70	.07	3.86 ± 0.20	0.25	.78
	6	6.86 ± 1.03			3.89 ± 0.20		
	7	6.87 ± 0.80			3.87 ± 0.27		
Gender of infants	Boy	6.66 ± 1.14	-1.74	.08	3.88 ± 0.24	0.00	1.00
	Girl	6.88 ± 0.82			3.88 ± 0.18		
Birth rank of infants	First	6.90 ± 0.93	3.00	.00	3.89 ± 0.18	1.13	.26
	≥ Second	6.51 ± 1.13			3.86 ± 0.27		
Type of delivery	Vaginal	6.86 ± 0.94	2.55	.01	3.89 ± 0.19	1.18	.24
	C-sec	6.51 ± 1.17			3.85 ± 0.27		
Mother's age (yrs)	≤ 30	6.75 ± 1.03	1.43	.24	3.88 ± 0.17	0.14	.87
	31 ~ 35	6.83 ± 0.99			3.87 ± 0.25		
	≥ 36	6.49 ± 1.13			3.87 ± 0.2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6.65 ± 1.16	-0.87	.38	3.88 ± 0.28	0.07	.95
	≥ College	6.78 ± 0.98			3.88 ± 0.20		
Mother's employment	Working mothers	6.86 ± 1.05	0.80	.42	3.88 ± 0.18	0.18	.86
	Homemakers	6.73 ± 1.02			3.87 ± 0.23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sup>a</sup>	6.48 ± 1.14	4.63	.01	3.84 ± 0.28	1.60	.20
	200 ~ 299 <sup>b</sup>	6.92 ± 0.91			3.89 ± 0.19		
	≥ 300	6.81 ± 1.00			3.89 ± 0.17		
Family structure	Nuclear	6.78 ± 0.98	0.87	.39	3.88 ± 0.22	0.06	.95
	Extended	6.63 ± 1.23			3.87 ± 0.21		
Family support	Yes	6.82 ± 0.99	1.94	.05	3.89 ± 0.18	1.67	.10
	No	6.52 ± 1.13			3.83 ± 0.33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mother-infant attachment

(N=258)

Variable	Infant temperament				
	Amenability & persistence	Activity	Responsivity to stimuli	Adaptability	Total
	r (p)	r (p)	r (p)	r (p)	r (p)
Mother-infant attachment	0.29 (<.01)	0.21 (<.01)	0.33 (<.01)	0.07 (.30)	0.33 (<.01)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모가 인지한 기질총점은 Kim과 Jang(2009)의 모유수유모의 기질총점과 유사한데, 이는 모유수유라는 양육행위가 영아기 기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지한데 기여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는 Jang, Yong, Kim, Park과 Kim(2005)이 모유수유를 하는 초산모들이 아기가 보채다가도 모유를 물리면 쉽게 달래진다고 한 연구와 Lee와 Kwon(2006)이 모유수유모가 분유수유모보다 자신의 아이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산후 우울로 영아를 부정적 혹은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하는 어머니들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면 영아의 불규칙성이 조절되어 기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연구(Jones, McFall, & Deigo, 2004)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Lee 등(2003)의 연구에는 분유수유모의 기질 총점이 모유수유모보다 더 높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Lee 등(2003)의 연구대상자가 생후 1~12개월까지 다양한 개월수의 영아이고, 특히 영아기질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시기인 생후 6개월 이전의 어린 영아가 다수 포함되어 초래된 결과라 생각된다.

또 일반적 특성별 기질의 차이가 출생순위, 분만형태, 가족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 분만은 질식분만을 한 경우, 가족 월수입은 200 만원 이상 일 때 어머니가 영아기질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Yun & Hyun, 2007)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기질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Lee 등(2003)에서도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Lee 등(2003)에서는 제왕절개를 한 어머니가 영아기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고, 출생 순위에 따른 기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영아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제 변수들을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아 기질은 모아 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Yun & Hyun, 2007) 보다 빠른 시기에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해 올바른 양육을 제공해야 함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둘째 혹은 그 이상의 영아를 둔 어머니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어머니 및 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면서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영아기질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모아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한편 모유수유모가 인지한 모애착 정도는 3.88/4점으로 Kim과 Jang(2009)의 모유수유 영아모 3.86점, 분유수유모 3.78점과 유사한 점수이다. 이렇게 모유수유모와 분유수유모의 모애착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Britton 등(2006)이 모유수유와 애착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다만 모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와 분유수유를 선택한 어머니는 모아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애착은 수유형태보다는 모아 간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영아기 모아간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은 영아와 어머니가 모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점은 모애착 점수가 어머니들의 보고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므로 실제 모애착 정도와 다를 수 있어 전문가의 관찰로 모애착을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모애착과 영아기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영아 기질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모애착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기질적으로 순할수록 영아는 어머니와 애착을 잘 형성한다는 연구결과(Han & Yee, 2005),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어머니에게 까다로움을 적게 보였다고 한 연구결과(Park, 1999)와 같은 결과이다. 또 Barnes 등(2007)이 3개월 된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와의 관계에 대해 2분 동안 말하도록 했을 때 영아가 보채는 기질일수록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는 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이상의 고찰 결과 모유수유 영아모는 영아기질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모애착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적절한 발달은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기질에 맞는 양육 행위를 통해 조화로운 모아 관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데, 모유수유가 모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생후 5~7개월 된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한 25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아기질과 모애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모유수유 영아모는 영아기질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모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기질과 모애착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아기 기질은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위로 변화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생후 6개월 전후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한 경우 영아기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만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아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것이다.

또 영아기질 및 모애착과 대상자의 제 특성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영아기질은 영아의 출생순위, 분만형태, 가족 월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영아기질 도구의 항목 중 ‘수유시간이나 종류를 변경했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의 항목은 모유수유 영아모의 경우 수유 종류를 한 번도 변경한 경험이 없어 응답에 어려움이 있었고, 모애착이 어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된 점수라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모유수유 영아모가 인지한 영아기질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어느 시점에서 영아기질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영아기질이 개월 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 Psychol*, 44, 709-716.
- Andrews, A. W. (1990). Changes in maternal characteristics are predictive of changes in maternal perception of infant temperament. *J Community Health Nurs*, 7(4), 235-244.

- Bang, K. S. (200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infant temperament inventory. *J Korean Parent Child Health*, 4(2), 32-41.
- Barnes, J., Ram, B., Leach, R., Altmann, L., Sylva, K., Malmberg, L., Stein, A., & The FCCC Team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 study of mothers of young infants. *J Reprod Infant Psychol*, 25(2), 122-138.
- Britton, J. R., Britton, H. L., & Gronwaldt, V. (2006). Breastfeeding, sensitivity, and attachment. *Pediatr*, 118(5), e1436-e1443.
- Cassidy, J., & Shaver, P. R. (2002).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ffman, S., Levitt, M. J., Guacci, N., & Silver, M. (1992). Temperament and interactive effects: Mothers and infants in a teaching situation. *Issues Compr Pediatr Nurs*, 15(3), 169-182.
- Han, J. H., & Yee, Y. H.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s temperament and infant'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s. *Korean J Child Stud*, 26(6), 287-303.
- Han, K. E. (2001).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steem and maternal sensitivity with mother-to-infan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an, K. J., & Bang, K. S. (2000). Correlation of infant tempera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2), 132-143.
- Jang, N. Y., Yong, S. H., Kim, E. Y., Park, Y. H., & Kim, J. Y. (2005). The lived experience of breastfeeding in primiparas. *J Clin Nurs Res*, 8, 21-37.
- Jones, N. A., McFall, B. A., & Diego, M. A. (2004). Patterns of brain electrical activity in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who breastfeed and bottle feed: the mediating role of infant temperament. *Biol Psychol*, 67, 103-124.
- Kim, M. Y., & Jang, G. J. (2009).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and infant temperament according to the feeding method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3(1), 107-115.
- Kim, S. C., & Kwak, K. J. (2007). The relationship of development change of temperament and problem behaviors during infancy: Early characteristic of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terns. *Korean J Child Stud*, 28(6), 183-199.
- Lee, S. Y., & Kwon, I.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12(3), 231-239.
- Lee, Y. E., Kang, Y. H., Park, H. S., Hwang, E. J., & Mun, M. Y. (2003).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206-22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2005-nutrition survey( I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uller, M. E.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 to infant attach. *J Nurs Meas*, 2(2), 129-141.
- Park, K. J. (1999). Relations of maternal sensitivity and temperament to infants attachment security. *Korean J Child Stud*, 20(3), 3-17.
- Pridham, K. F., Chang, A. S., & Chiu, Y. (1994). Mothers' parenting self-appraisals: The contribution of perceived infant temperament. *Res Nurs Health*, 17(5), 381-392.
- Shin, Y. H. (2000). Nutritional and immunological characteristics of breast milk: A review. *J Korean Parent Child Health*, 3(2), 94-107.
- Worobey, J. (1993). Effects of feeding method on infant temperament. *Adv Child Dev Behav*, 24, 37-61.
- Yun, H. J., & Hyun, O. 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mother temperamen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 Child Stud*, 28(2), 1-17.